

하였다(서울시, 2006).

또한 시흥시, 나주시, 순천시에서는 생태문화도시를 도시의 문화비전, 기본계획 목표로 설정하였고,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에코텔 타시티, 송산 그린시티 등을 조성하며,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과정에서 도시의 생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의 융복합적 관점에서 생태·문화적인 도시를 추구하였다.

박미옥(2008)은 생태문화를 생태학과 문화를 결합하여 생태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문화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융복합적 의미로 정의하였으며, 생태문화는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문화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도시 및 지역의 발전과정에서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의 내적인 융합을 성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적 문화도시 형성을 대안적인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8)은 생태문화도시를 생태적인 의식, 가치, 기술, 사회제도 등이 조화를 이룬 도시로써 환경·문화·지역(공간)을 축으로 각각에 초점을 둔 생태도시·문화도시·참여형 마을/도시라 하였고, 그 교집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생태문화도시의 구성요소로서 지속가능성, 주민참여/거버넌스, 문화경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생태문화도시 형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형성하고 개념 및 정책방향 등이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시는 생태적 문화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에 생태적 문화의 형성과 거리가 있는 정책 및 사업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평가지침과 세부 항목들이 생태문화적 관점에서 미흡하며, 그 성과조차 양적인 지표만으로 이루어져 적절하게 평가하기 힘든 점이 있다.